

# ‘시간제근무’全공무원 확대

내년부터 정무직·특정직만 제외  
중앙인사위, 개정법안 입법예고

현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제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확대된다.

증양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부처는 한시적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제도를 개선,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대행케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근무형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정하고, 보수나 휴가 등도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 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 보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90일)까지 합쳐 6개월이 넘으면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206개 대학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KAIST처럼 특별법으로 설치된 대학에도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1단계구간(37.6km)가 23일 개통된다. 개통을 하루 앞둔 22일 시민들이 시험 기동 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정이 뇌를 움직인다?

영 더 타임스 인터넷판 보도

### ‘판단은 이성의 전유물 아니다’

“죄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 살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히말라야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다. 생존자는 당시와 한 남자, 그리고 소년 등 단 3명뿐이다. 소년은 다리를 다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또 다른 생존자인 남자는 소년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뒤 그 힘으로 마음을 찾아 산을 내려가고 한다. 당신의 선택은?

인간을 ‘인간이’ 하는 힘의 핵심인 뇌. 하지 만 사람들은 로봇처럼 이성적 판단만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때론 이성보다 감정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만으로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도덕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남가주대학(USC) 연구팀은 뇌 부위인 북내측 전전두피질(腹內側前頭皮質·VM-

PC)이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6명을 포함해 30명의 자원자들에게 ‘죄없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등 선뜻 택하기 어려운 여러 도덕적 난제들을 제시한 뒤 결정을 내리게 했다.

실험 결과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이들은 다른 자원자들보다 ‘감정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한 사람을 희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특정 도덕적 딜레마에 있어서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감정이 이러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 온/오프만족

- 김종우

### 유망 일자리 제공·취업기반 확충 등

## 과학기술인 평생 지원

### 정부 ‘인력양성’ 정책 발표

과학기술인의 전생애에 걸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행사를 갖고, 과학 영재 발굴에서부터 중견 과학기술인 육성,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全週期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특히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학력·직종·연령·성별 등으로 구분한 지역별 분포현황을 집대성한 ‘국가 과학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학교육 혁신 ▲초·중등 과학교육

선진화 ▲과학문화 대중화 ▲과학기술 인력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국가 과학기술 인력지도 구축 ▲과학기술인 능력향상 프로그램 확대 ▲유망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기반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기적 인력양성 체계 강화방안은 과학영재 발굴→교육→취업→연구→은퇴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인의 전생애에 걸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부는 특히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학력·직종·연령·성별 등으로 구분한 지역별 분포현황을 집대성한 ‘국가 과학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결산공고

先日報 광고국

전화 : (062-227-9600)  
FAX : 062-227-9500  
E-mail : dd811@hanmail.net

## 산행안내

3월 24일(토)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월 24일(토) 10시 산행의 날(광주도민인권 이수원 수레산·봉선산 3)

▲광주도민